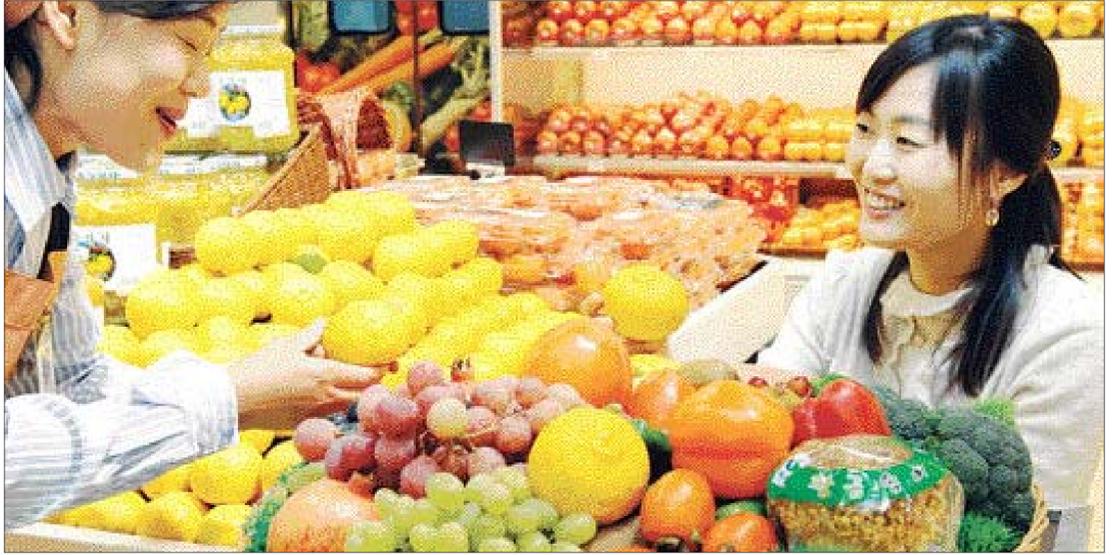


[리빙]

가격 아무리 비싸도 건강에 좋다면야...

먹거리도 名品 바람 프리미엄 식품 뜬다



프리미엄 식품의 원조는 과일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식품매장에서는 1개당 파파야는 7천원, 석류 5천원, 적포도 6천원, 고추시(감) 700원 등 프리미엄 과일도 일반 제품에 비해 30~40% 비싸게 팔리고 있다. /니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프리미엄 식품 바람이 거세다.

음료와 과자, 식용유, 라면 등 전 식품 군에서 고급 원료와 세련된 디자인을 채택한 제품들이 등장하고 있다. 유기농 원료를 사용하거나 보존료와 착색제 등을 첨가하지 않은 식품, 제로 칼로리와 무(無)트랜스지방 등을 표방한 음료들이 쏟아지고 있다.

이들 식품과 음료는 대부분 일반 제품보다 맛이 좋고 가격도 비싸다. 뿐만 아니라 브랜드 디자인과 포장재 등도 소비자의 오감을 만족시킬 만큼 세련되고 화려하다.

최근 등장한 프리미엄 식품으로는 기린의 '천년의 향'을 꼽을 수 있다. 상향버섯과 오대산 생수로 만든 최고급 식빵으로 가격이 일반 식빵에 비해 3배 이상 높은 1만 원이다.

오리온은 커피 전문점을 찾는 20~30대 여성을 겨냥한 쿠키 '프리모'를 내놨다. 아몬드 등 좋은 재료를 사용한다. 수제 제품을 연상시킬 만큼 정성이 묻어난 과자다.

농심 '건면세대 청국장'은 튀기지 않은 면에 웰빙식품인 청국장을 결합한 프리미엄 라면. 체지방 연소에 도움을 주는 콩렐라이드도 함유해 먹어도 살찌지 않는 라면이라는 것이다.

동원F&B의 '양반 명품포기' 김치는 순 국산 야채를 엄선해 만든 제품이다. 대형마트에서는 구입할 수 없고 VIP 전용 콜센터에서만 주문할 수 있다. 유통 경로를 차별화해 수수의 충성 고객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한국야쿠르트의 '히루야채 퍼플' 오우거의 '유기농 케첩' 등은 이른바 유

가 인가다. 올리브유와 포도씨유의 장점들만을 섞어 놓았다는 현미유는 혈압과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피부노화와 갱년기 장애에 좋다는 입소문을 타고 인기를 끌고 있다.

유비코리아의 '마리미 현미유' 등 수입품과 CJ제일제당에서 내놓은 '백설유 현미유' 등 4~5종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프리미엄 식품들이 이처럼 늘고 있는 이유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건강에 좋고 기능이 뛰어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수요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를 결정하는 요소가 가격과 품질에서 제품의 가치로 이동한 것이다.



전통적인 가족 제도가 붕괴되고 핵가족 중심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것도 한 요인이다. 핵가족 문화의 특징은 감성과 편의를 추구한다는 것. "내 아이는 다르기 때문에 먹는 것도 달라야 한다"고 믿는 '먹거리 명품족'이 그들이다.

식품업체들은 성숙기에 들어선 국내 식품시장을 키우는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프리미엄 제품을 꼽고 있다. 품질과 기능성을 높여 가격을 올리는 길이어야 할 때 매출 증대의 지름길이란 의미다. 수입이 늘고 있는 외국산 식품에 맞서기 위해서라도 프리미엄 제품 개발은 시급해졌다.

식품 업체들은 프리미엄 제품을 구매력 높은 소수를 대상으로 1차 판매를 해 이미지를 고급스럽게 형성한 다음 대중화 과정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식품업계 관계자는 "프리미엄 제품은 매출이 폭발적으로 늘지 않더라도 일정한 수위를 보장하는 고객층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시장 안정화 상품"이라며 "프리미엄 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간장·된장·소스까지 신선하게

프리미엄 식품 바람 타고 냉장식품 크게 늘어

프리미엄 식품 바람이 불면서 냉장 식품이 크게 늘고 있다.

요즘 대형마트에 가 보면 냉장고(냉장 판매대)에 진열돼 있는 제품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상온(常溫)에서 판매됐던 캔 커피나 간장·된장, 소스 등이 냉장 판매대에 있다.

이마트의 경우, 과거 매장마다 70~80대에 불과했던 냉장 판매대의 숫자가 올해 문을 연 신규 점포에선 100대 이상으로 늘었다. 비용 부담이 큰데도 냉장 판매대를 늘려 가는 것은 소비자들이 신선한 제품을 원하기 때문이다. 당일 하루만 팔고 마는 '하루 계란'이 인기를 얻는 것이 한 예다.

유통업체에선 산지에서부터 소비자의 손에 들어가기까지 냉장 상태에서 운송·진열·판매하는 것을 '콜드 체인'이라고 부른다. 예를 들어 상추라면, 밭에서 채취한 지 5분 이내에 냉장 작업장

으로 옮겨지고 분류 및 포장 작업이 모두 냉장 상태에서 이뤄진다. 채소는 따서 2시간 이내에 냉장을 시키면 숨을 멈춰 신선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콜드 체인을 따라 옮겨질 경우, 밭에서 딴 직후와 가장 가까운 상태에서 소비자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된다.

프리미엄 가공식품이 등장한 것도 큰 변화다. 요즘 나오는 고급 액상 커피가 올해 문을 연 신규 점포에선 100대 이상으로 늘었다. 비용 부담이 큰데도 냉장 판매대를 늘려 가는 것은 소비자들이 신선한 제품을 원하기 때문이다. 당일 하루만 팔고 마는 '하루 계란'이 인기를 얻는 것이 한 예다.

발효식품인 장류도 냉장 상태로 많이 판매되고 있다. 롯데마트에서 판매되는 냉장용 장류는 재래 된장과 유기농 간장 등 20여 가지로 지난해에 비해 종류가 두 배나 많아졌고 매출도 25% 가량 늘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시중보다 3배 이상 비싼 식빵·먹어도 살 안찌는 라면...

가격 비싸지만 맛 좋고 건강에 좋은 식음료 백화점·마트 이어 편의점 진열대까지 점령

가능 야채를 재료로 만든 식품, 3년간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은 토양에서 무농약으로 재배한 야채인 만큼 고가일 수밖에 없지만 안전성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소비층이 확대되고 있다.

동서식품 '스타벅스 디스커버리'와 롯데칠성음료 '칸타타' 등은 커피의 고급화 바람을 타고 등장한 프리미엄 컵커피와 캔커피다. 해태음료 '자은 까만콩차', 풀무원 '아임리얼' 등은 차와 주스류의 정점으로 꼽힐 만큼 품질과 맛을 차별화하는데 성공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를 점령한 프리미엄 식품들은 이제 편의점 식품 매대까지 진출하고 있다. GS25는 패밀리 레스토랑 '베니건스'의 인기메뉴인 이탈리아풍 스파게티인 '알프레도 시푸드 링귀니'와 '프리마베라'를 상품화해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지난해 23일 출시이후 기존 스파게티 제품에 비해 1천원가량 비싼데도 매출이 5~10% 늘었다.

웨이마트도 최근 1천300원짜리 '골드참치김밥'을 내놓으며 '편의점 김밥=700원'이라는 공식을 깨뜨렸다. 세븐일레븐은 지난해부터 일본 된장을 스프로 만든 '채미소생라면(2천800원)'을 출시, 일반 컵라면에 비해 1천500원 비싸지만 매출은 20% 더 늘었다고 밝혔다.

프리미엄 제품의 진화도 거듭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오일이다. 올리브유에 이어 포도씨유가 프리미엄 오일시장을 점령하더니 요즘에는 '현미유'



영화보다 재미있는 영화관 www.megabox.co.kr

메가박스

구.런던역사거리 ☎예매1544-0600

| | |
|---------------------------------|------|
| 1관 베오울프 (다지필/15세) | 최고급관 |
| 2관 세븐 데이즈 (18세) | |
| 3관 색, 계 (18세) | |
| 4관 로스트 라이언즈 (15세)/더 버터플라이 (15세) | |
| 5관 식객 (12세) | |
| 6관 바르게살자 (15세)/스카우트 (12세) | |
| 7관 마을금고 연쇄 습격사건 (15세) | |
| 8관 베오울프 (15세) | |
| 9관 스카우트 (15세) | |

5월 1일부터 메가박스 다지필이 종료됩니다.
 * 이프유 주차장 이용시 3시간 무료 (단, 영화 관람객에 한함): 3시간 초과시 정액요금 부과
 * 무료팝콘 뷔페-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무료

—은 가족의 편안한 문화공간—

엔터시네마

총장로 5가 (전화예약) 228-2700

| | |
|-------------------------|--|
| 1관 블랙 달리아 (18세) | |
| 2관 킹덤 (18세) | |
| 3관 스카우트 (12세) | |
| 4관 궁녀 (18세)/바르게살자 (15세) | |
| 5관 식객 (12세) | |
| 6관 세브란스 (18세) | |
| 7관 베오울프 (15세) | |

www.entercinema.co.kr
 * 넓고 편안한 워너-음외 주차장 300대 *
 * 빛고을 문화의 수도 엔터시네마 *

환호시광 영화시영 *예매: www.joycoco.com / 1588-7941

컬롬버스 시네마 상무점

상무점 (상무병원과 이마트 사이) 해남점 (무역회관앞편)

| | |
|------------------------------|--|
| 1관 스카우트 (12세) | |
| 2관 바르게 살자 (15세) | |
| 3관 베오울프 (15세) | |
| 4관 베오울프 (15세) | |
| 5관 색, 계 (18세) | |
| 6관 마을금고 연쇄 습격사건 (15세) | |
| 7관 더 버터플라이 (15세)/세븐데이즈 (18세) | |
| 8관 로스트 라이언즈 (15세) | |
| 9관 식객 (12세) | |
| 10관 세븐데이즈 (18세) | |

* 오늘 최대 주차장 *예매심야 상영합니다 * 1588-7941
 *정액요금 1000원 *정액요금 1000원 *정액요금 1000원

색깔있는 영화선박 *www.cinusc.co.kr / 1544-0070

씨너스 전대

북구보전소 건너편 ☎ 511-1000

| | |
|------------------------------|--|
| 1관 스카우트 (12세) | |
| 2관 마을금고 연쇄 습격사건 (15세) | |
| 3관 식객 (12세) | |
| 4관 바르게살자 (15세)/더 버터플라이 (15세) | |
| 5관 로스트 라이언즈 (15세) | |
| 6관 베오울프 (15세) | |
| 7관 세븐 데이즈 (18세) | |

* 매일심야 상영합니다 *
 * 무료주차 3시간 *이동통신사 할인혜택 *세너스북상 시무(오전사-개세) * ARS 전화예매 1544-0070

즐거움이 가득 *www.mc12.co.kr / 1588-9101

무등극장

총장로 1가 ☎ 232-9106

| | |
|---------------------------------|--|
| 1관 궁녀 (18세) | |
| 2관 바르게 살자 (15세) | |
| 3관 베오울프 (15세) | |
| 4관 스카우트 (12세) | |
| 5관 마을금고 연쇄 습격사건 (15세) | |
| 6관 식객 (12세) | |
| 7관 더 버터플라이 (15세)/로스트 라이언즈 (15세) | |
| 8관 색, 계 (18세) | |
| 9관 세븐데이즈 (18세) | |

* 리바사이드호텔 무등주차장(구 수협) 3시간 무료주차 * 인터넷 예매 문의 1588-9101
 * 정액요금 1000원 *정액요금 1000원 *정액요금 1000원

세로문기름 *www.primuscinema.com/www.jelcinema.co.kr

제일시네마

총장로 3가 *ARS 전화예매 227-1960

| | |
|-------------------------------|--|
| 1관 식객 (12세) | |
| 2관 세븐데이즈 (18세) | |
| 3관 마을금고 연쇄 습격사건 (15세) | |
| 4관 스카우트 (12세) | |
| 5관 색, 계 (18세) | |
| 6관 바르게살자 (15세)/로스트 라이언즈 (15세) | |

* 티켓만 있으면 팝콘이 공짜! *
 * 무료주차 3시간 (중주 세무소 옆 호남타워주차장) 단, 입장권 구매 고객에 한함 * ARS 전화예매 문의 227-1960

